

육바라밀 실천 앞장선 선지식

前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행장

현대 한국의 대표적 선승으로 추앙받았던 정일 스님은 끊임없이 참구하는 수행자였을 뿐 아니라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했던 시대의 스승이었다.

9살 되던 해 도살장에서 죽을 차레를 기다리고 있던 소의 눈망울을 보고 생사(生死)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날 고서점에서 <선가귀감>을 발견하게 된다. 뜻도 잘 모르면서 수십권을 뒤집어 해 읽은 스님은 이를 계기로 조계사로 출가해 1958년 금오 선사를 제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선가귀감' 읽고 출가

이때부터 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이 발하기 시작한다. 망월사에서 천일기도를 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매일 새벽 두 시에 일어나 냉수욕을 했다. 그렇게 오백일이 지나자 냉기가 뺏속까지 들어와 소화가 안 되고 병병이 났다. 그 후 지나친 고행을 하거나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천일기도를 회향한 후 당시 동산 스님이 조실로 있던 범어사에서 결계하던 중 장엄업불 중 '육문상방자금광(六門常放紫金光)'이라는 대목과 <화엄경> '약한계'에 나오는 '육육육사급어삼(六六六四及與三)'의 이치를 깨치게 된다.

스님은 경계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올바른 견지(見處)인지 점검하기 위해 전강 선사를 찾아갔다. 스님이 경계를 이르

니 전강 스님은 일원상(一圓相)을 그리고는 '입야타 불야타(入也打 不也打) 공안을 물었다. 스님이 결망을 지고 원 안으로 들어가시는 시늉을 하자 전강 선사가 주장자로 어깨를 한 번 쳤다. 이에 스님이 '무엇을 지냈습니까?' 라고 하니 전강 선사가 재차 주장자를 쳤다. 스님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답하니 전강 선사가 다시 쳤다.

이렇게 여러 번 오고간 후 전강 선사는 방법을 바꿔 '의리(義理)로 일러보소'라고 했다. '의리'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잠자코 있었더니 전강 선사가 다시 공부를 지어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 동안 들리지 않았던 화두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바른 선지식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무치게 깨닫게 된다.

이후 스님은 전강 선사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범어사에서 3년씩 인천 홍화사에서 3년, 수원 용주사에서 3년 전강 선사 문하에서만 약 10년 간 수행 정진했다. 그러던 중 홀연히 마음의 눈이 열려 다음과 같은 오도상을 읊었다.

극빈자는 이슬 맺힌 갈대숲이 좋다
출연 한 가닥 시렁이 온 대지를 투과하니
만년 전사 부처님 열반이 드러났네

極貧者喜歡帶露的蘆葦叢
渾然間一縷始光透過整個大地
萬年前事佛已涅槃

안개비가 내리는구나, 안개비가 내리는



법주사 공현당에 차려진 정일 스님의 빈소에 출·제가지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나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슬픔과 같이
전인 미담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霧雨下着霧雨下着
最後如告別時的傷痛
對前人未踏地掛念呼
到靜靜地泛着小溪水洗一把臉吧

치열한 정진, 수행사표

정일 스님은 포교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기도 했다. 1979년 서울 우이동 보광사를 설립하는 한편, 금산 선문사, 부산 보광사, 정주 총부불교문화회관 등을 건립했다. 특히 보광사 '신도교육 프로그램'은 경전을 통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는 스님의 지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보광사를 처음 찾은 불자는 우선 광명진언을 하루 1000번씩 21일간 외우고 천도재를 지낸다. 그리고 <지장경> 300독, <금강경> 100독, <관세음보살품경> 50독을 마치면 천도재를 또 올린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제자로서 몸과 마음의 번뇌를 한 꺼풀 벗었다는 뜻에서 지내는 천도재는 <선가귀감> 50독, <원각경> 300독, <법화경> 30독을 할 때마다 계속돼, 다시 한번 <선가귀감>을 50독 하는 것으로 끝난다.

스님은 생전 "우리를 머리 속에 번뇌 망상과 눈으로 익힌 알음알이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경전 한 두 번 읽어서는 그 오묘한 진리를 체득할 수 없어요. 번뇌망상의 척도로 전 것인지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우쭐해 하지만 본래 모습을 보기에는 어렵겠지요. 수백 수천 번 경전을 읽게 하는 것은 인과(因果)를 알고 그 속에서 번뇌망상을 보고 본래 자성을 깨달아서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라며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부처님의 법은 중생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탈출만해도 견드릴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경전을 읽고 육바라밀을 실천해 기초를 다져 화두를 드는 것도 부처님 법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도들에게 경전을 수백번 읽도록 하는 것은, 화두를 들어 본래 마음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요"라며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했다.

즉 경전을 읽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 외에도 육바라밀을 함께 실천해 불법을 체득하는 경지까지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에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 즉, 육화정진은 불제자들의 실천적 생활 윤리다.

선학원 발전의 주역

백산사 주지, 보광사 조실, 선학원 이사, 법주사 주지, 심우회 이사 등을 역임한 스님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2001년, 25년간 묵은 과제였던 조계종과 선학원간의 갈등을 푸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또 선학원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선학원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후학들에게는 서툰말 같은 엄격함으로 모범을 보였지만 신도들에게는 한없는 자애로움으로 대했던 정일 스님은 원적에 들기 얼마 전 시자 스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갈 곳 없는 곳을 가야만 한다."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창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거라."

不能去的也要去
修到底要去何方
打開窗戶看一看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깨달음- 열반, 같은가 다른가

동화사 담선대법회-근본불교시대의 선사상과 실천



호진 스님은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의 성취이지만 그 이전에 깨달음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 열반은 체법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선불교의 현주소를 조명하는 동화사 담선 대법회가 9월 4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회 담선대법회는 현승 스님(중앙종회의원의 사회로 '근본불교시대의 선사상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두고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이 발표를 했으며, 미산(중앙승가대 교수) 재연(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스님, 조준호 박사가 논평을 했다.

호진 스님은 붓다의 수행과 최초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수행법,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간화선과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스님은 싯다르타가 수행과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이며, 붓다의 가르침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이며, 열반은 체법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교는 시대, 상황, 사람에 따라 변천했으며, 만약 어떤 하나의 수행 방법이나 교리를 고집할 때 그것은 붓다의 최초 가르침인 중도에 위배되며, 토론을 통해 새로운 수행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3명의 논사가 다양한 각도에서 반박에 나섰다.

"8정도(는) 순서대로 하나씩 뒤야 나가야 하며, 앞의 7지는 정정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단계"라는 호진 스님의 차체수행론적 입장에 대해 미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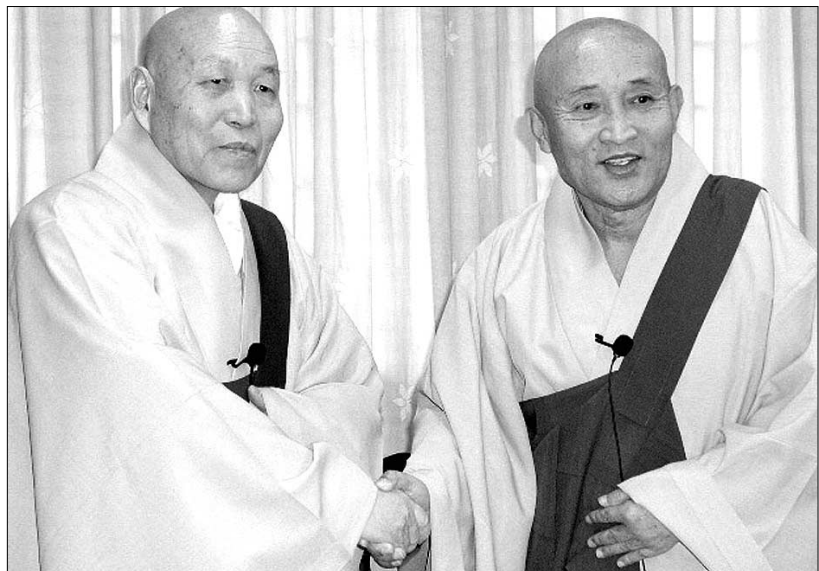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했고, 재연 스님은 "8정도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반박



정일 스님은 조계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선학원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001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정대 스님(오른쪽)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모습.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제9대 회장 취임법회

모시는글

귀의삼보하옵고

대덕스님의 법체청안과 불자님들의 가내 안영을 합장,축원 드립니다.
1,400여개 사찰, 200만 부산불자를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에서는 제9대 회장으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기에 제방의 대덕큰스님들과 교계 내, 외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제9대 회장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부산발전과 불교중흥의 새날을 함께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좋은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제9대 회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도원

준비부위원장 정각, 중학, 혜충, 청봉, 일헌, 정훈, 계진, 장산, 해륜, 금중, 지모, 월인, 의강, 범산

- ◆ 일시: 불기 2548년 9월 17일(금) 오후 6시
- ◆ 장소: 부산 영주동 코모도호텔 "충무홀"
- ◆ 문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전화: 051)867-0501~3
전송: 051)867-0504
코모도호텔 전화: 051)469-9102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연혁

- 1980년 5월 13일 창립. 초대회장 범어사 주지 김덕명스님
- 1982년 6월 10일 2대회장 대각사 주지 김경우스님
- 1984년 5월 24일 3대회장 금수사 주지 이범홍스님
- 1986년 10월 16일 4대회장 범어사 주지 이흥교스님
- 1990년 11월 15일 5대회장 범어사 주지 서벽파스님
- 1992년 6월 20일 6대회장 범어사 주지 조정관스님
- 1996년 3월 29일 7대회장 범어사 주지 백성오스님
- 2000년 9월 17일 8대회장 범어사 주지 백성오스님
- 2004년 9월 17일 9대회장 범어사 주지 김대성스님 취임

※ 내빈 좌석마련 및 공양 준비를 위해 행사 전 본회 사무국으로 참석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화사 담선대법회 동영상(www.buddhanews.com)으로 볼 수 있습니다.